

철학사입문코스Ⅳ

제8강 라이프니츠와 로크의 사상

제8강 1교시

◆ 라이프니츠의 사상 2

라이프니츠도 전형적인 제작적 세계관을 가졌었다.

→라이프니츠는 철학자로서는 마지막으로 제작적 세계관을 이야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스피노자의 책은 대단히 중세적이다. 스콜라철학, 이슬람철학, 유대철학을 모르면 『에티카』를 쉽게 읽을 수 없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중세적인 방식으로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를 이야기한 사람이다.

라이프니츠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의 사유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전체 모양새는 완전히 중세의 신학이다.

⇒ 오늘날 라이프니츠의 사고를 총체적으로 따르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부분적인 아이디어들은 대단히 현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제작적 세계관

신은 비물질적인 모나드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질료에 구현한다.

→신은 어떤 본질essence만 설계를 하고 개체가 가지는 질적인 차이는 matter에서 유래한다.

과학에서의 우연과 철학에서 말하는 우연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필연이고 본질이지만(말을 하고 두 눈이 있고 직립보행을 하는 것 등) 마름/뚱뚱함 등의 개개인의 차이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연이다.

▲모나드와 예정조화설

라이프니츠는 신이 ‘개체들individuals’을 창조했다고 한다.

예) 뽀빠의 모나드, 나폴레옹의 모나드, 키케로의 모나드처럼 하나 하나의 개체 모나드를 창조했다는 것.

몸은 없고 모나드만 있는 상태란 그 모나드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 계열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예) 카이사르의 모나드라고 하면 로마에서 태어나다/삼두정치를 하다/폼페이우스를 몰락시키다/클레오파트라를 만나다/브루투스에게 찔려 죽다 등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것이다. 아직 몸은 없지만 몸에 구현되었을 경우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규정만 있는 것이다.

모나드 안에 들어 있는 그러한 하나 하나의 사건들을 **빈위**라고 한다.

⇒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신과 피조물을 연관해서 생각하기보다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놓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모든 개체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체는 단순히 빈위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순서까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들은 모두 프로그램된 인형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신에게 귀속된다.

각각의 빈위들은 맞물려서 함께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예정조화설**이다.

▲공각기동대의 예

공각기동대에서는 전뇌화된 미래의 세계를 배경으로 어떤 악명 높은 인형사가 나온다. 나중에 밝혀지길 그 인형사는 컴퓨터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이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정보의 거대한 집적체이다. 프로그램에 정보가 중층적으로 계속 쌓이다보니 의식이 생겨난 것이다. 즉 몸은 없지만 컴퓨터 안에 어떤 의식을 가진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정보의 무수한 계열화로 이루어졌는데 아직 몸은 없고 의식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모나드이다.

⇒ 모나드는 동양식 개념으로 말하자면 귀신과 비슷하다.

▶ 참고자료

공각기동대 (攻殻機動隊: Ghost In The Shell, 1995)

다른 제목 : Kokaku Kidotai

감독 : 오시이 마모루

출연 : 타나카 아츠코, 오즈카 아키오, 오키 타미오, 카유미 레마사, Abe Lasser, 야마데라 고이치



철학사입문코스Ⅳ

제8강 2교시

◆ 계몽사상의 세 단계와 로크의 사상

psyche→anima/spiritus

영혼은 실체substance이다. 보통 우리는 res extensa와 res cogitans의 차이에 주목하는데 사실 둘 다 res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둘 다 sustance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서양근대철학사를 도식적으로 본다면 17세기 철학은 대체적으로 형이상학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철학은 형이상학을 부정하는 시대(계몽사상의 시대)였다. 18세기 말~19세기 초에 계몽사상을 계승하기는 하지만 형이상학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상이 독일관념론이다. 19세기 중엽부터는 실증적이고 이론적인 현대적인 의미의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다.

⇒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과정 중의 하나는 **영혼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후로는 물질과 구분되는 실체로서의 영혼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영혼이라는 것을 어떤 실체로 본다면 오히려 물질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점이다. 라이프니츠를 마지막으로 실체로서의 영혼 개념이 무너진다. 또한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낡은 것이 되고 그 대신 **마음mind, 의식consciousness**이 나타난다. 그리고 마음이나 의식을 실체가 아니라 기능function이나 능력faculty으로 본다.

▲ 계몽사상의 세 단계

계몽사상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영국경험론**의 등장이다. 다음은 **(2)프랑스 계몽사상**, 그 다음이 **(3)독일관념론**이다. 영국경험론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그것이 일반화되고 극단화 보편화되는 것이 프랑스 계몽사상이다.

영국경험론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사유를 세우는데 그런 생각이 대중화, 일반화되고 사회운동화되는 것이 프랑스계몽사상이다. 독일관념론은 근대의 계몽사상을 계승하기는 하지만 프랑스계몽사상의 극단적인 유물론주의나 파괴적인 사상으로부터 벗어나 보수적으로 회귀하는 계몽사상이다.

⇒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존 로크(John Locke)**이다. 로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세의 그림자 안에 있던 사람이지만 근대적인 경험적empirical인 사고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존 로크는 인식론과 정치철학에서 업적을 남겼다. 로크에게서는 더 이상 영혼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다. 그의 주저로는 『An essay on the human understanding(인간오성론)』이 있다. 로크는 어떤 실체로서의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성understanding이라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오성은 이성이라는 말보다는 좁은 의미의 말이다. 이성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이성 중에서 합리적rational이고 과학적 분석적인 능력이 understanding이다.

칸트⇒ (1)이성Vernunft(reason) (2)오성Verstand(understanding) (3)감각Sinn(sense)

로크의 이야기는 우리문화로 말하면 심성론 이성론인데 심성론이나 이성론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윤리나 도덕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서양 근대철학에서는 윤리나 도덕적인 실천보다는 인식이 앞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인식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17세기에 이루어진 새로운 과학적 성과들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로크 사유의 출발점→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근거 있는 모든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

영국경험론에서 말하는 경험experience이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의 경험을 뜻한다. 즉 영국경험론에서 말하는 경험이란 지각perception을 말한다.

⇒ 독일관념론은 영국경험론이 말하는 경험은 너무 좁은 경험이고 우리의 정신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경험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근대 이후 철학의 역사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단 경험론을 존중하면서도 경험이라는 개념이 영국경험론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경험만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크의 이야기는 17세기 철학의 맥락에서 보자면 데카르트를 겨냥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경험을 출발점으로 가지지 않고 본유관념에서 출발한다.

▶ 참고자료

로크 [Locke, John, 1632.8.29~1704.10.28]

영국의 철학자·정치사상가.

출생지 영국 링턴

주요저서 《인간오성론》(1690)

